

소설의 크로노토프와 여성서사 시학(3)*

— 『혼불』을 대상으로 —

안 숙 원**

1. 죽음의 서사, 『혼불』
2. 『혼불』과 죽음의 크로노토프
 - 2.1 죽음의 크로노토프
 - 2.2 姓과 姓의 교착 : 망혼제, 투장
 - 2.3 여성성의 고양과 타자의 디스코스 : 혼불
 - 2.4 등가의 원리와 類感의 주술언어
3. 맺음말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 2002-050-A0005)

**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국문초록

본고는 여성가족사소설 『혼불』과 죽음의 크로노토프를 검토한 것이다. 죽음의 크로노토프는 실제 장소와 기호학적 죽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청암부인의 무덤, 후자는 인물들의 죽음과 죽음에 관련된 각종 의례, 민속소재들 - 망혼제, 평토제, 혼불, 투장, 제문, 열녀비, 액막이연…… 따위로 제시된다. 이처럼 죽음은 『혼불』의 서사소(narrativity)로서 작중인물들은 타나토스에 깊이 강박돼 있다. 하지만 그 죽음은 생명의 씨앗이 되어 조상과 자손의 세대가 교체, 지속하는 자연의 로고스로 간주된다. 죽음의 크로노토프에서 보자면, 『혼불』은 영생, 순환하는 한국인의 존재론을 서사화한 살(肉)과 뼈(骨)의 축제다. '살로는 情을 나누고, 뼈로는 일을 한다'고 했다. 청암부인이 몰락한 종가를 '내 홀로 내 뼈를 일으키리라.'고 다짐하듯 일제 치하 망국민으로 무기력한 남성을 대신해 종가를 지켜낸 여성 3대(청암부인-울춘댁-효원)를 비롯, 민족의 보존을 떠맡은 여성들의 수난사가 『혼불』의 기둥줄거리다. 하지만 플랫폼위에서 『혼불』은 플랫폼없는 열린 텍스트이다. 장황한 수사, 에피소드들의 나열, 시간모순 등으로 시점의 혼란이 많고 결말다운 결말이 없다. 이를 판소리와 같은 부분의 독자성으로 볼 수도 있지만 소설담화의 적정성을 고려하면 서사단위들의 파편화를 응집하는 데도 크로노토프는 유용한 개념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혼불』은 일제 치하 창씨개명과 더불어, 넷물을 사이에 두고 원뿔/아랫물의 지지적 공간분할에 따른 예각화되는 것을 통해 가계연속성 욕망과 민족주체성을 동일시한 여성가족사소설의 특성을 보여준다. 동시에 『혼불』은 여성신체의 풍요원리, 집안살림의 내공쌓기로 여성성을 고양시키고 자력으로 가문의 혼불이 된 종부를 통해 타자의 디스코스를 재현했다. 무엇보다 언술층위에서 『혼불』은 전통사회 여성들의 구연담화와 내간체의 기록담화를 혼합하고, 흡일력을 발휘하는 풍부한 비유와 생기있는 묘사로 소설언어의 영역을 최대한 확장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핵심어 : M. 바흐진, 크로노토프(Chronotope), 죽음의 크로노토프, 혼불, 종부, 종가, 씨, 흡일정, 투장, 자궁, 여성가족사소설, 집, 모순등가성

1. 죽음의 서사, 『혼불』

여성가족사소설¹⁾ 『혼불』(1996)은 죽음의 서사다. 제목 ‘혼불’²⁾의 상징성부터가 그러하고 청암부인의 와병에서 임종까지 3년 동안이 텍스트 전체 ‘이야기된 시간’³⁾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⁴⁾ 죽음은 G. 프랭스(Prince)의 이른 바 핵심서사⁵⁾에 해당된다. 신방을 치른 지 사흘만에 신랑의 죽음을 겪은 청암부인은 젊은 시절엔 단명한 종가의 대물림 때문에 자손들이 요절하지 않을까 하여 죽음의 불안에 떨었고, 사후엔 그녀를 회상하는 주위사람들의 기억 속에 거듭 되살아나 영향을 미친다. 그녀의 죽음은 텍스트의 죽음이자 매안 이씨종가의 몰락이며 저수지의 조감지바위까지 갈증을 느끼게 하는 서사적 파괴력을 갖는다. 작중의 다른 인물들도 저마다 죽음에 강박돼 거의 파라노이아 상태에 있다. 이기채는 위장병을 앓고, 강모는 죽음의 송가라는 R.세레스의 「글

1) 여성 가족사소설이란 부권이 몰락한 시기에 타자화되었던 여성들의 역사를 중심으로 전통적 가계 질서를 전복하는데 주력한 현대가족소설이다.

오세은, 「여성가족사소설연구」(서강대학원 박사논문, 2000), p.31.

2) 임종을 앞둔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푸른 불꽃으로, 이것이 비치면 사흘, 석 달 이내에 초상을 예고하는 죽음의 징표이다. 여자의 혼불은 등글며 남자의 혼불은 좀 더 크고 긴 꼬리가 달렸다고 한다. (최명희, 『혼불』 제1부 제2권, 한길사, 1992, p.283).

3) 서사론에서 ‘이야기된 시간’은 사건의 시간이고 ‘이야기하는 시간’은 독서시간이다. 『혼불』의 ‘이야기된 시간’은 청암부인이 일흔의 나이로 죽기까지 그녀의 일생과 그 후 1년간을 합해 71년 정도이고 독서시간은 5부작 10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명희, 『혼불』, 한길사, 1996).

4) 청암부인의 임종에서 죽음에 이르는 서사시간은 무려 351쪽(제1부 2권 18장~제2부 2권 13장)이 할당되고 그녀의 장례식에 관한 묘사만 해도 제2부 1권 1장~3장까지 장장 90쪽에 이른다. 강모와 강실의 근친상간이 사건의 비중에 비해 문중사람들에게 끝까지 밝혀지지 않는 것과 대조적이다. 여기에도 청암부인의 여성영웅적 성격을 감안할 때 『혼불』은 청암부인에게 바치는 悲歌다.

5) Gerald Prince, *Narratology*, Mouton Publishers, N.Y., 1982, pp.83~84.

루미 선데이』를 읊조리며 강실은 대보름날 액막이연에 자기가 실려 사라지는 환각에 빠지는가 하면, 기구한 소박데기 인월댁은 투신자살을 기도한다. 뿐만 아니라 강수의 망혼제, 동계와 남평의 사관논쟁, 평토제, 졸곡제, 조침문, 투장, 열녀비, 유서, 제문, 시신을 담은 소나무관의 뿌리인 백복령 따위, 죽음과 관련된 각종 민속소재들, 종가에 전해오는 선대 청상과부의 동전 한 닢, 폐장이 터져 죽은 내동댁 손자, 동상으로 볼을 베어낸 부서방딸의 죽음, 나아가 일제 강점하의 망국=나라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텍스트에 만연한 죽음은 『혼불』과 타나토스와의 친화력을 보여준다. 가령, 서술자가 만년의 청암부인이 시집의 첫인상을 토로한 대목을 보자.

① 기구하게도 흰 덩을 타고 처음 이 대종가의 문턱에 들어설 때 코에 혹 끼쳐온 것은 곰팡이가 끼인 흙냄새였다. 그리고, 그네를 집안에서 맞이해 준 사람은 마님이라고도 불리지 못하던 한 과수댁(寡守宅)이었다. (『혼불』 제1부 제1권, p.72)

② 더욱이, 여러 부인을 기구하게 잃고 번등걸이 다 되어버린 시부 홀로 퇴락한 사랑에 그늘처럼 음울하게 누워있는, 그야말로 텅 비어버린 듯한 집채를 향하여 열아홉의 나이로 신행을 하는 걸음이었으니……(『혼불』 제1부 제1권, p.73)

위 인용문들은 청암부인의 입지전적 종부의 삶을 더 돋보이게 하려는 발화전략의 중첩반복서술⁶⁾이긴 하지만 ①, ②의 연이은 페이지에 죽음의 모티프를 동어반복함으로써⁷⁾ 전체적으로 텍스트는 청승긋고 음울한 분위기를 지니게 된다. 청암부인처럼 결혼식날 소복에 흰 가마

6) 슈네트.G., 권택영 역, 『서사담론』(교보문고, 1992), p.113.

7) 이 모티프는 뒤에도 몇 번 더 반복되고 있다. 예컨대, 『혼불』 제1부 제1권, p.177, 제3부 제2권 pp.33~34.

를 타고 시집오는 신부란 상상만 해도 충격적이다.

죽음은 한국인의 4대 不淨⁸⁾의 하나다. 不淨은 곧 금기다. 금기시하는 것은 否定되어야 하는 不正이다. 不淨=否定=不正은 공포를 낳는다. 그런데 최명희는 17년 간이나 공들여 쓴 『혼불』을 죽음의 아우라로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다. 죽음인식에서 최명희는 동시대의 여성작가인 박완서와도 사뭇 다르다. 박완서의 단편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에서 요절한 아들을 둔 어머니가 슬픔에 못이겨 ‘생때같은 사람은 죽고 없는데 물건은 질기기만 하다.’고 탄식하는 반면, 최명희는 『혼불』에서 역사교사 심진학의 입을 빌어 ‘물건에는 그걸 지니던 사람의 혼이 담겨있다.’고 말한다. 전자가 죽음을 생의 끝장으로 보았다면, 후자는 삶의 연속으로 보는 것이다. 전통사회 한국인들은 몸에서 살이 빠져나가는 것이 肉脫이고 뼈만 남아도 망자의 넋은 여전히 깃들여 있다고 믿기도 했다. 그런 차원에서 『혼불』은 조상의 정신을 계승함으로써 祖-孫이 공존하고 씨=혈통이 보존되어 영생, 순환하는 한국인의 존재론적 탐구라고도 할 수 있다. 이것은 청암부인의 친정아버지가 “사람이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상으로 가는 것, 처녀가 시집가듯이.”라고 한 말에서도 뒷받침된다. 청암부인의 염습은 원삼을 입히고 꽃신을 신겨 장례식/결혼식의 경계가 무너지며 출상날엔 신행때의 흰 가마가 꽃상여로 바뀌고 있다. 그리하여 『혼불』은 세대지속, 교체를 위해선 씨앗의 죽음=열매가 있어야 하듯 삶/죽음의 이분법적 대립을 넘어 재생, 반복의 우주적 리듬에 따르는 크로노토프적 시간형식을 보여준다. 이는 삼라만상의 순환과 공생의 윤리를 추구하는 생태학적 주제이기도 하다.

8) 한국인의 4대 不淨은 죽음, 性, 여성, 타인(타처)이다.
김열규 외, 『신삼국유사』, (사계절, 2000), p.61.

『혼불』에 대한 기존논의 중 괄목할만한 것으로 김열규⁹⁾의 『혼불』의 생태비평, 장일구의 연행 해석학적인 연구인 『혼불읽기 문화읽기』¹⁰⁾를 들 수 있고, 여러 필자들이 참여해 『혼불』을 다각도에서 조명한 논문집 『혼불의 문학세계』¹¹⁾도 있다. 『혼불의 문학세계』엔 『혼불』의 서사구성과 이데올로기적 상관성을 논의한 황국명, 페미니즘적으로 접근한 이덕화, 김복순, 인물의 성격을 연구한 이정숙, 『혼불』을 판소리의 구술문화유산으로 본 강은해, 천이두의 한의 주제론, 윤영옥의 인물의 욕망 연구¹²⁾ 등이 수록되었다. 죽음과 관련해서 『혼불』이 검토된 것은 앞서 언급한 오세은의 논문에 부분적으로 논의된 정도인 것 같다.¹³⁾ 본고는 바흐찐적 크로노토프의 관점에서 『혼불』의 서사시학은 죽음의 크로노토프가 전경화된 소설이란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¹⁴⁾

9) 김열규, 「생태 묵시록 시대의 『혼불』의 생태비평」(현대문학이론학회 학술대회 팸플릿, 전북대 1999.12.4), pp.1~13.

10) 장일구는 텍스트에 대한 매우 치밀한 분석이 돋보이지만 흔히들 지적하는 『혼불』의 전주 중심의 편협한 역사의식조차 긍정적인 지역주의로 평가하는 것은 과독(overinterpretation)이 아닌가 한다. 장일구, 『혼불읽기 문화읽기』(한길사, 1999), pp.272~273.

『혼불』의 지역주의는 작품의 다른 요소들(전라도 토박이말과 로컬리티)에 의해 성공적으로 재현되어 있다. 심진학선생이 견훤 편하의 공적 역사를 의심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조선이 백제의 후신이라는 등, 이성계가 견훤의 아들(『혼불』 제4부 제2권 18장, p.151)이라고 주장하는 건 억지스럽다.

11) 전라문화연구소 편, 『혼불의 문학세계』(소명출판, 2001), pp.3~424.

12) 윤영옥은 모방을 환상이라고 한 라캉이 배제된 채 지라르의 모방론에 입각해서 욕망을 논의하고 있다. 위의 책, p.334.

13) 오세은, 「여성가족사소설 연구」(서강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0), pp.51~54.

14) 본고는 러시아 사회시학자 바흐찐의 한국 문학 적용에 관심해 온 필자가 크로노토프의 차원에서 여성가족사소설인 박경리의 『토지』(1966~1994), 박완서의 『미망』(1990), 최명희의 『혼불』(1996)을 통해 한국 여성서사 시학을 탐색해 보려는 세 번째 시도이다. 물론 본고의 한정된 지면에서 이 소설의 복잡다기한 에피소드를 모두 포괄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프라하 형식주의자들의 전경화한 영화의 클로즈업에 대응되는 공간의 은유이다.

2. 『혼불』과 죽음의 크로노토프

2.1 죽음의 크로노토프

M. 바흐찐¹⁵⁾에 의하면 크로노토프는 변화하는 시간을 경험하게 해 주는 물질적 장소로서 하나의 육체 안에 두 개의 몸을 가진 여성의 자궁과 같은 구체적 실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것의 속성인 양가성, 대화성, 다성성 같은 기호학적 범주를 나타내기도 한다.¹⁶⁾ 특히 자궁과 무덤은 근원적 크로노토프(Ur-Chronotope)¹⁷⁾로서 이것과 연관된 언술들은 여성의 몸에 근거한 여성의 시공간 경험을 부각시킨다. 곧 여성의 신체하부인 자궁의 크로노토프는 임신, 출산 따위로, 죽음의 크로노토프는 상처=재생, 씨앗(열매)=죽음/부활로 봄으로써 그로테스크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⁸⁾ 『혼불』의 서술자도 ‘무덤이 사람의 원초적 모태’라고 했다. G.프로이트, P.브룩스, J.버틀러가 몸을 의미를 체현하는 장소, 의미를 생성하는 공간으로 인식, 정신분석학적인 육체에 초점을 두는 입장이라면 바흐찐은 카니발 육체의 물질적 감각과 기능을 강조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바흐찐의 크로노토프(Chronotope)는 그의 소설론에서 시간

15) M.바흐찐의 문학이론은 발화형식상 다성성, 의미론적으로 카니발로 정리할 수 있고 그의 소설이론인 크로노토프도 여기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대화의 상호관련성을 다루었지만 개인과 집단의 길항을 간과했다고 비판받기도 한다. 최인자, 「대화적 서사의 진정성 윤리와 서사문화교육」, 『국어국문학』, 제 141호, 2005, 12, p.414.

16) Ruth Ginsburg, "The Pregnant Text : Bakhtin' s Ur-Chronotope", *Critical Studies*, (ed), Myriam Diaz-Diocraetz, Ammsterdam, -Atlanta, GA, 1993, p.173.

17) Ibid, p.169.

18) M. Bakhtin, 전승희 외 역,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 비평사, 1988, p.413.

의 가시화로 서사의 매듭이 맺히고 풀리는 장소, 소설 속 재현의 중심이 되는 시공간을 가리킨다.¹⁹⁾ 『혼불』을 크로노토프로 독해하는 이점은 플롯층위에서 이 작품이 아리스토텔레스적 의미의 플롯이 해체²⁰⁾된 소설이라는 것이다. 플롯이 없다는 것은 『혼불』이 구슬 꿰기식 모티프의 나열²¹⁾, 0도의 서사속도, 장황한 수사와 고사인용 등에 기인하는 시점의 혼란과 결말없는²²⁾ 텍스트임을 가리킨다. 이를 판소리²³⁾와 같은 부분의 독자성으로 볼 수도 있지만 소설담화의 적정성²⁴⁾을 고려하면, 크로노토프는 서사단위들의 파편화를 응집하는 데도 유용한 개념

19) M. M. Bakhtin, *Dialogic Imagination*, (trans), Caryl Emerson & Micheal Holquist, Texas Univ., 1981. p.250.

20) 『혼불』의 서사적 층위에서 효원의 결혼식이 시작되고 말미에 효원은 강실이 암자로 피절을 떠나지 못한 사실만을 오류골뎨한테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고 있어 결말다운 코다(coda)를 기대한 독자는 좀 실망스럽다. 옹구네한테 붙잡혀 있는 강실이의 위태로운 처지는 어떻게 되는 건지, 만주의 강모와 강태는 별로 하는 일 없이 시간만 축내고 있는 것 같고 오유끼는 눈치없이 강모에게 애정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천덕꾸러기 신세다.(코다는 W.라보프의 용어로 다음을 참조. Mary Luise Pratt, *Towards a Speech Act Theory of Literary Discourse*, Indiana Univ. Press, 1977, pp.45~46)

21) 이것에 대해 김복순은 조각보구조라고 일컫는가 하면, 황국명은 작가가 시간을 부정하고 정적적 환상을 가진 탓이라고 했다. 김복순, 앞의 책, p.373, 황국명, 같은 책, pp.170~173.

22) F.커모드는 결말이란 시간을 소멸시키는 재앙이라며 결말 강박증은 근대적 산물이라고 말한다. Roy Pascal, "Narrative Fiction and Reality", *Novel*, Fall, 1977.

23) 강은혜는 『혼불』에서 '이야기하는 시간' 배분의 대등성을 거론했으나 옹구네와 평순네의 발화를 대등한 시간으로 볼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서사론에서 '이야기하는 시간'은 수제층위에서 예술의 길이(시간)인데 거명굴 사람들과의 발화는 거의 다 옹구네의 담화이며 평순네와 옹구네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강은혜, 「혼불의 서사원리」, 앞의 책, p.112.

그밖에도 이 논문은 『혼불』의 중요인물인 부서방을 박서방으로 표기하고 있어 바로잡아야 할 것 같다. 위의 책, p.128.

24) 소설담화는 일반담화의 화자-청자관계가 지켜질 수 없고 내포작가의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에 내포독자는 따를 수밖에 없다. Mary. L. Pratt, Op. Cit., pp.125~132.

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혼불』은 표층적으로는 산만한 것같으나 심층적으로는 모티프의 유사성에 의한 연상기법에 의존하고 있어 텍스트의 결속구조(cohesion)는 느슨해도 연결성(coherence)은 유지하고 있다.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이번 여름, 지난 겨울, 오늘……’ 따위의 시간부사들이 지시하는 대로 파블라상의 순차적 인과성을 정리할 수 있지만 『혼불』에선 그런 시간부사들이 숨바꼭질하듯이 텍스트 속에 숨어있어 독자가 여간 꼼꼼하게 살피지 않으면 이것들을 놓치기 쉽다.²⁵⁾ 게다가 『혼불』에는 어떤 사건이나 사물이 환기하는 다른 사건과 사물로 옮겨가며 서사적 역전, 후진이 많다. 이를테면, 청암부인의 내적 독백으로 사당에 혼백을 고하는 장면의 경우, 서사순서는 삼우제→하관→장례식으로 시간 역전이 일어나 인과적 선조적 독서에 익숙한 독자의 몰입을 방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연대기적 기술을 피하고 진행중의 사건을 심층묘사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따라서 『혼불』 속 시간의 불일치²⁶⁾는 내포작가가 공리적 시계시간을 벗어나 경험적 시간의 밀도나 영원히 반복하는 우주적 리듬에 서사를 맡기는 크로노토프적 시공간 인식과 결부시킬 수 있다.

주제층위에서 『혼불』의 크로노토프는 몸담론과 바흐찐적 형용 모순(Contradictio in adjecto)²⁷⁾인 시적 역설로 제시된다. 『혼불』에서 몸

25) 『혼불』의 서두인 강모와 효원의 결혼식은 음력 시월 초순이라고만 하고 날짜를 밝히지 않았으며 그것도 몇 페이지를 지나서 슬쩍 독자에게 말해준다. 또 결혼식부터 처갓집 세배, 청암부인의 거깃전보까지를 텍스트에 얘기한 순서대로 연결해 보면 강모의 결혼식(15세)→이듬해 정월(16세)→동년 가을 조모의 전보(15세)라는 시간의 불일치가 발생한다.

26) 여기서 말하는 서사시간의 불일치는 모든 소설들의 본질적 속성인 ‘얘기하는 시간(Erzahlzeit)’과 ‘얘기되는 시간(erzählte Zeit)’의 불일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수재차원의 연술을 스토리차원으로 정리하려고 했을 때의 선조적 모순을 의미한다. 슈네트, G., 권택영 역, 앞의 책, 1992, p.30.

27) 논리학의 ‘contradictio in adjecto’는 ‘임신한 노파’, ‘잔인한 친절’ 따위, 양립

담론은 東→南→西→北으로 배치된 사천왕상처럼 몸의 생태방위에 따른 圓의 세계관을 나타내며 이는 삶과 죽음이 대립이 아니라 순환, 재생의 주기적 반복 곧 자연의 로고스=몸의 질서로 본다는 뜻이다. 또한 형용 모순은 『혼불』의 서술자와 작중인물이 탄생=죽음, 시작=끝, 선=악이라고 말할 때처럼 양가성의 대립을 지양한 모순등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강모가 강실을 범하고 독백하는 ‘얻는 것이 잃는 것’이라든지, 서술자가 ‘씩지만 씹지 않은’ 백복령 소나무라고 한 것, 강호가 느끼는 사천왕상의 힘=해학성, 사냥꾼과 까마귀부자의 인연=악연, 법련사 가는 길의 휴게소 체리암(滯離岩) ‘머물고 떠나는 자리’ 따위도 그런 예다.

『혼불』에서 죽음의 크로노토프는 실제 죽음의 장소로서 무덤과 기호학적 범주의 죽음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청암부인의 무덤과 풍수장어의 명당 등이 있고 후자는 혼불 따위, 앞서 언급한 죽음과 관련되는 모티프들이 포함된다. 이때 얘기가치를 기준으로 크로노토프의 층위를 나눠 보면, 주요크로노토프가 청암부인의 죽음(부인의 와병, 임종, 입관, 매장, 평토제, 삼우제, 졸곡제……)이고, 종속크로노토프가 청암부인 시부의 상처 내력, 창씨개명, 열녀담, 유서, 강수의 망혼제, 만동의 투장, 인월택과 강실의 자살시도, 도환의 사천왕불사와 호국불교, 만주에서의 부서방딸의 죽음, 심진학선생과 시체처리장…… 등이 되겠다. 또한 죽음이 임박한 사람의 몸에서 나온다는 푸른 불꽃인 혼불과 시신을 입관하고 빈소에 안치해두는 얼마 동안은 아직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경계공간에 처해 있는 크로노토프의 시

할 수 없는 말을 짜맞추어 수사적 효과를 거두려는 모순어법으로 바흐진 미학의 원리라고 알려져 있다. 이문영, 『바흐진 대화주의와 *contradictio in adjecto*』, 『러시아문학』 제12집(러시아문화학회, 2002), p.160.

간이다.²⁸⁾ 그리고 『혼불』에 묘사된 죽음의 구체적 감각은 ‘이가 시리다’는 김씨부인의 표현처럼 ‘살이 식은 사람’에게서 지각되는 촉감으로 온다. 『혼불』에서 죽음의 크로노토프는 결국 씨=혈통, 씨앗(열매)의 문제로서 씨 지키기/바꾸기의 갈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양자의 대립을 해소하는 크로노토프가 피가름의 탄생과 살가름의 죽음이다. 거명굴 옹구네가 ‘피가름으로 양반 상놈 한몸이 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듯이 『혼불』에서 반상계급으로 유지되어온 촌락공동체는 창씨개명(1939)과 같은 역사적 소용돌이로 신분사회가 붕괴 조짐을 나타내자, 거기에 편승해 씨 바꾸기를 갈망하는 상민들과 성씨를 지키려는 양반의 대립이 예각화된다.²⁹⁾ 이씨 문중이 씨 지키기의 주인공들이라면, 춘복과 옹구네, 만동부부, 쇠여울네³⁰⁾, 백정 택주, 등은 씨 바꾸기로 변동천하를 욕망하는 인물들이다. 후자는 다시 투장과 성적 교합에서 돌파구를 찾는데 투장은 만동부부에 의한 청암부인의 묘지 훼손이고, 성적 교합은 춘복의 강실 겁탈이다.³¹⁾ 투장의 경우, 천출의 핏줄을 벗어나 보려는 무부 홍술의 유언에 따라 청암부인의 무덤이 파 헤쳐지는 것이다. 춘복은 이 엽기적인 범행현장을 목격하고도 천민끼리의 동류의식에서 종가에 불려가 못매를 맞으면서 끝내 침묵한다. ‘쌍놈의 씨를 끊고 싶어 장가들기도 싫다’는 춘복의

28) 『토지』에서 월선이 죽었을 때 길상도 그런 생각을 하며 매장하기 전의 시간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자문한다.

29) 역사적으로 반상의 유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례로, 고종 때 을사늑약에 항의하며 자결한 송병선을 뒤따라 노복 복남이 자결해 지금도 그 집안에서는 복남의 무덤을 송병선의 발치에 묻고 제사도 같이 모신다고 했다. 『혼불』, 제2부 1권, pp.168~170.

30) 『혼불』, 제2부 제2권, p.225.

31) 강수와 진예, 강모와 강실의 근친상간은 당사자들이 씨를 부정하겠다는 의도를 명시한 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씨를 거부한 행위가 된다.

말에서 하층민들이 가진 신분의 한이 얼마나 사무치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씨가 다르게 안 그러냐? 씨가……”

공배의 그 말에 춘복의 눈꼬리가 위로 찢겨 올라간다.

“씨? 씨가 머이간디? 일월성신이 한 자리에 피야 앉아서 콩 개리고 팔 개리디끼 너는 양반 종자, 너는 쌍놈 종자, 소쿠리다가 갈러 놓간디? 그 리 갖꼬는 땅우에다 모 붓는 거여? 그렇 것도 아닌디, 사람들이 이리저리 갈러 놓고는 양반은 양반 노릇하고, 쌍놈은 씨가 빠지고 안 그러요? 그거 이 머언 씨 탓이랴요?”³²⁾

넷물을 경계로 상거가 뚜렷한 원뿔 / 아랫물의 지지적 공간분할이 반상의 신분표지이기도 한 원뿔의 매안 이씨 양반 집성촌 / 천민의 거명 굴, 상민의 고리배미 사람들이 뒤섞이는 변동천하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일제의 악랄한 창씨개명에 의해 이루어진다. 창씨개명은 한국인들이 누대에 걸쳐 핏줄로 지켜온 자기정체성인 성씨, 족보를 바꾸라는 것이다.³³⁾ 청암부인은 자기가 그토록 지켜내고자 한 종가의 핏줄이 창씨개명으로 일시에 허사가 된 것같은 허탈감에 몸져 눕는다. 춘복을 비롯한 천민들은 중세기 남원 노비 출신 유자광이 정승으로 신분상승의 실현모델이었다는 사실에서 대리만족을 얻으며 지배자가 양반이든, 식민주체든 착취당하기는 매일반이라고 생각하기에 창씨개명이 민족훼손이었다 해도 그다지 부정적이지도 않다. 오히려 냉소적으로 은근히 반기기도 한

32) 『혼불』, 제1부 제1권, p.91.

33) 『미망』에서 태임도 창씨개명은 식민주체들이 아무런 실리도 없건만 굳이 그런 걸 식민지 백성에게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인들의 성씨 집착을 알고 고의적으로 민족적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한 바 있다.

다. 『혼불』에 드러난 반상의 뒤섞임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도식1〉

	개인간	지역간
계층별	청암부인 + 홍술, 강실 + 춘복	반촌 + 거명굴, 고리배미
씨 바꾸기	투장, 성적 교합	창씨개명

『혼불』은 대화적 대립관계인 병치법³⁴⁾을 즐겨 구사하는데 위에서 보듯 『혼불』의 민중들은 당시의 모든 조선인들이 일제의 창씨개명을 격렬하게 반대했을 것으로 생각하는 내포독자에게 조금 당혹스럽다. 그러나 이것은 가계연속성 욕망과 민족주체성을 동일시한 여성가족사 소설의 특성을 공유하면서도 민족구성원들 간의 인식 편차를 세밀히 읽어낸 『혼불』의 개성이다.

또한 창씨개명은 상민 아낙네들에게도 택호를 부여하게 되어 반가의 여성들은 그것을 못마땅해 한다. 본래 택호란 양반집에서 시집가는 여성의 家格을 나타내는 신분증명서로서 상민아낙네에겐 애초에 택호랄 게 없었다. 공배네, 평순네처럼 아이 이름을 붙여 호명하면 그만이었던 것이다. 인월댁, 율촌댁, 등은 모두 반가여성의 친정집 소재지를 따서 부르는 호칭이다. 더구나 청암에서 시집온 청암부인은 청암댁이 아니라 청암부인으로 격상되어 있다. 청암부인에 의하면, 그같은 귀/천의 씨 = 혈통을 구별하고 탕자가 유자로 될 가능성은 안목을 기르기 위한 ‘공부’에 달려다고 했다. 안목이란 사물에 대한 통찰력이다. 이것이 있고 없고

34) M.M.Bakhtin, *Problems of Dostoevsky's Poetics*, (trans), Caryl Emerson, Minnesota, 1984, p.28.

에 따라 사람이 귀/천이 나뉘어지는 것이라는 청암부인의 말은 계급모순의 원인을 개인의 의지에 두고 있다는 한계를 드러낸다.

2.2 性と 姓의 교착 : 망혼제, 투장

『혼불』의 역사적 배경은 일제치하이지만 작중의 주요 사건이 서사화되는 것은 조선인의 창씨개명 무렵이고 공간적 무대는 전라도 남원 지방 매안이다. 서사공간을 멀리로는 만주까지 확장할 수 있으나 스토리는 이씨 종가와 중부였던 청암부인의 죽음과 장례식, 임종을 전후한 시기에 집중돼 있어 그만큼 이 작품의 서사공간은 폐쇄적이다. 마을 바깥출입을 경험하는 인물이라야 남자는 가끔 전주로 나들이하는 기표와 만주의 강모, 강태, 심진학, 부서방, 일본 유학중인 강호 정도이고 여성인물들의 행동반경 역시 직업상 떠돌이 황아장수와 방물장수, 요릿집의 유녀인 오유끼 등을 제외하곤 집안에 한정돼 있다. 매안은 이씨들의 집성촌인만큼 그들에게 양반으로서 특권을 누리는 작은 왕국다운 보호공간이기도 하지만 좁은 장소에 누대로 웅기종기 모여살다 보니 근친상간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저런 패륜도 적지 않았을 것이나 반가의 체통에 묻혀 외부로 더 새어나가지 않았던 것뿐이다. 열아홉의 한창 나이로 진예와의 상피 끝에 자살한 강수를 두고 문중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파문당하기 전에 죽은 게 차라리 잘 된 일이라고 말하는 비정한 사람도 있다. 다른 문중에서 알면 자기네 문중의 망신이라는 게 이유였다. 문중에서 파문당하면 온 집안 권속들이 일문에서 쫓겨나 유리결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가문의식의 폐단이다. 우리말의 '집'이란 가족=가정, 집안=집의 안, 내부공간인 동시에 가족 나아가 가문을 가리키는 것임을 보아도 한국인의 집안얘기는 단일

가족의 서사가 아니라 가문을 통틀어 포괄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말해 한국인의 姓氏는 金, 李, 朴……을 가리키는 단순한 가족의 기호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신분과 계급을 구분하는 사회적 변별징표인 것이다. 씨는 씨앗이자 혈통, 가문이었다. 피는 족보, 가승으로 기립받는 가족구성원들의 궁지다. 다같은 양반이라도 집성촌/각성바지가 엄연히 달라 전란이 일어나면 집성촌 양반들은 별로 피해를 입지 않은데 비해, 각성반이 양반들은 멸문지화를 당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도 집성촌의 보호공간성을 말해준다. 그러기에 핏줄, 씨를 지키겠다는 양반 지배층의 편집적 태도가 강할 수밖에 없고 하층민들 또한 변동천하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 근대사에서 그런 계급 모순이 파천황으로 분출된 사건이 동학혁명(1894)이런만 『혼불』은 황국명이 지적한³⁵⁾ 대로 동학혁명에 관한 얘기가 없다. 키텍스트의 차원에서, 작품의 지리적 배경인 남원 일대는 19세기말에 분출한 민권자각운동이었던 이 혁명의 진원지(고부)가 멀지 않고 가까운 지리산 자락엔 패잔병들이 일제치하 항일 무장투쟁의 의병이 되어 활동하던 근거지였던 터에 『혼불』이 이것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게 이상하다. 그런 측면에서 『혼불』은 강태가 사회주의를 공부하겠다고 만주를 유랑한다거나 심진학선생이 정전화된 한국사의 사실효과(reality effect)³⁶⁾를 비판하며 소외된 백제역사에 비분강개하고 강호가 사천왕의 힘을 빌어 국권회복을 염원한다고 해도 추상화³⁷⁾의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 점, 다른 여성

35) 황국명, 앞의 책, p.157.

36) T.Todorov(ed), *French Litetary Theory Today*, Cambridge Univ. Press, 1982, pp.11~12.

37) 『혼불』에서 심진학 선생이 박해규가 쓴 연변 '박씨촌' 조사보고서를 통해 만주의 코리안 디아스포라(Diaspora)를 추적하기로 결심하는 것도 간도에 정착하게 된 밀양 박씨들이 이민족 사이에서 300여년 간이나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며

가족사소설들 예컨대, 『토지』, 『미망』 작가의 정치적 허무주의와 동귀에 있다.

『혼불』에서 姓과 姓의 교착은 섹슈얼리티를 매개로 同姓간의 성적 교합과 異姓간의 성적 교합이 있다. 양자 모두 죽음을 초래하거나 살아도 산 게 아닌 고통이 뒤따른다. 전자는 강수와 진예, 강모와 강실의 근친상간이고, 후자는 성폭력과 투쟁행위다. G.엘리엇이 여성의 자궁을 '민감한 그릇'이라고 한 것은 이들에게도 적용된다. 자궁이 민감한 그릇이라 함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두고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계약으로서 소유권과 혈통의 전달에 관련된 계약을 의미하는데³⁸⁾ 이 때 그릇은 보석상자와 항아리라는 두 가지 시니피에를 갖는다. 즉 보석상자는 소유권을, 항아리는 혈통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항아리가 임신한 여성의 불룩한 배를 유추한다고 보면, 『혼불』에서 자궁의 크로노토프는 효원, 춘복의 흡월정 모티프와 강실의 임신, 그리고 기표의 아들 봉출을 낳아 그의 혈통을 찾아주려는 침비 우레를 들 수 있다. 이것들은 모두 남성들의 일방적 성폭행의 결과로서, 효원의 경우는 강모가 강실과의 교합 뒤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그녀를 겁간한 것이며 강실의 경우도 변동천하를 꿈꾸던 춘복이 저지른 신분상승 욕구의 산물이다. 우레 역시 기표의 종갓집 여종 겁탈에 해당된다.

同姓간의 성적 교합인 강수와 진예의 경우, 동녘골댁의 아들 강수가 집안의 누이뻘 되는 진예와 근친상간을 나누다 강수가 상사병으로 자살한 지 7년째 되던 해, 구천을 떠도는 강수의 넋을 달래고자 그의 집에서 망혼제가 베풀어진다. 망혼제는 명혼제, 수망굿으로도 불리워

집성촌을 형성한 사례가 국난극복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 듯하나 텍스트상 실행에 옮긴 것 같진 않다.

38) 브룩스.P, 이봉지 외 역, 『육체와 예술』, 문학과지성사, 2000, p.460.

지며, 무속에서 총각, 처녀로 죽은 이들을 위로해 주는 사자혼례굿이다. 망혼제를 올리던 날, 담장 너머로 강실과 함께 굿을 구경하던 강모는 짚인형으로 된 강수의 제용을 보며 자신이 강수와 같다고 생각, 굿의 주술에 감염되듯 강실을 범하고 만다. 그 길로 강모는 신행 이후 거들며 보지도 않던 효원을 발작적으로 덮치는 것이다. 효원은 이런 강모의 돌출행동에 성적 모욕감을 느꼈지만 그녀의 '육신 한 구석에 박힌 증오의 웅이에서 생명이 자라' 철재가 태어난다. 철재에 대한 효원의 감정은 종가의 혈통을 이었다는 자부심과 강모에 대한 분노가 겹쳐 이율배반적이다. 강모는 강모대로 자기가 아내를 겁간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며 그의 상피사건은 때마침 담장곁을 지나던 옹구네에 의해 목격되고 소문은 동네로 은밀하게 퍼져 나간다. 옹구네는 그것을 처음엔 평순네에게 넌즈시 귀띔하는데 너무도 놀라워 믿기지 않아 하는 평순네의 입에서 구체적으로 강모와 강실의 이름을 발설하게 함으로써 그녀가 의도한 언어의 욕구적 기능의 연행 효과는 배가된다. 소문을 그렇게 정보화하는 옹구네의 수법은 교활하지만 그녀는 발화의 연행자로서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다. 평순네에게서 더 이상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소문의 증폭)를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옹구네는 다시 종가의 침비인 우례를 찾아가 ①우례-봉출-콩심-효원(청암부인 죽기 전)에게로, 대보름날밤에도 마을의 온갖 소식통인 비오리네 주막을 찾아가 소문을 흘려 ②비오리-황아장수(청암작고 후), 두 갈래의 전파를 집요하게 시도한다. 또 강실이 춘복의 아이를 임신한 사건도 ①춘복-옹구네-안서방네-효원, ②진의원-비오리의 두 가닥으로 전해지다 정작 강실의 어머니 오류골댁은 제일 늦게 이 정보를 접하고 망연자실한다. 이처럼 입만 열었다 하면 남의 험담이고 마을에 재앙을 불러오는 불미스러운 소문의 전달에는 항상 옹

구네가 있다. 옹구네야말로 여성 호기심의 원형(Archetype)인 판도라³⁹⁾다. 거명굴의 판도라 옹구네는 계약에 능하고 쾌락원칙에 충실한 탐욕적인 하층민인 점에서 『토지』의 귀녀와 닮았다. 김복순은 옹구네를 가장 건강한 인물⁴⁰⁾이라고 했지만, 황국명은 옹구네를 교활하고 천박한 한풀이를 일삼는 여자로 평가하는데⁴¹⁾ 옹구네가 비록 사악하긴 하나 과부신세로 총각인 춘복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강실을 춘복에게 붙여주고는 질투심에 못이겨 신세타령하는 장면, 종가의 못매질에 피투성이 된 춘복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모습은 독자의 연민을 자아낸다.

異姓간의 교합인 효원과 강모, 춘복과 강실의 경우, 효원, 춘복은 흡월정(吸月精)에 안간힘을 쓴다. 흡월정이란 음력 보름날이 다가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닷새 동안 달이 부풀어 오를 때, 갓떠오르는 달을 바라보고 서서 크게 숨을 들이마셔 우주의 음기를 생성해 주는 달의 기운을 몸 속으로 빨아들이는 일을 말한다. 여성들이 이 보름달의 기운을 마시면 달의 정기로 잉태하게 된다는 속신이 흡월정이다. 그런데 『혼불』에선 남성인 춘복이 강실에게서 자기의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정월 대보름날 동산에 올라 흡월정을 하고 있다. 그는 아예 강실을 삼키는 심정으로 달을 빨아들이려 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혼자 집을 보는 강실을 찾아가 대나무밭에서 그녀를 유린하고 만다. 춘복은 그 순간 자신을 옥죄던 핏줄이 끊어지는 것같은 허탈감과 함께 강실이 ‘남의 남’일 뿐이라는 소외감도 맛본다. 달=여성이고 서술자는 ‘작은

39) 판도라는 프로이트의 여성환자의 이름 도라를 환기시킨다. K부인을 향한 동성애적인 도라도 섹슈얼리티에 호기심이 많고 프로이트에게서 K씨의 이미지를 발견하려 하였던 여성이므로 도라는 판도라의 후예라고 보아도 될 것이다.

40) 김복순, 앞의 책, p.377.

41) 황국명, 앞의 책, p.154.

달'을 자궁이라고 했다. 춘복과 효원, 두 사람은 다 같이 흡월정을 했지만 효원의 그것이 종가의 핏줄보존이라면, 춘복의 경우는 천민의 핏줄거부이다. 춘복의 성폭행으로 인한 강실의 임신은 『혼불』의 가장 비극적 사건이 된다. 그것은 진의원의 태맥진단으로 강실의 부모에게 알려지고 딸의 혼처를 구하던 기응부부에게 청천벽력이다. 이럴 때, 강실로선 암눈비얏(익모초)만도 못한 자신의 불효가 한스럽기만 하다. 반상의 피가 엇갈림은 봉출의 출생에도 해당된다. 그는 약간 모자라는 저능아로 강태의 부친 기표와 종가의 침비 우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우레는 봉출더러 '반드시 니 성을 찾으라'고 거듭 상기시키는 것이다. 우레는 옹구네의 사주로 만주에 가 있는 강태를 영구히 귀국하지 못하게 해서 봉출로 하여금 기표의 유일한 상속자가 되도록 당골네로부터 부적을 받아두고 전전공공한다.

투장은 죽은 자의 육탈한 뼈를 남의 무덤에 매장함으로써 발복을 기원하는 속신이다. 이것은 명당으로 소문난 남의 유택에 자기 조상의 해골을 끼워넣는 행위여서 성적 조건이 필수적인 건 아니나 『혼불』에선 공교롭게도 청암부인의 묘지에 무부 홍술의 뼈를 투장함으로써 신분의 격차를 넘어 남녀간의 성적 교합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때 홍술의 아들 만동과 며느리 당골네 무당 백단은 청암부인을 능멸하는 쾌감을 맛보며 홍술과 청암부인이 남녀로 만나 저승길을 동행하게 되었다고 이죽거린다. 이들은 양반과 상민의 피가 뒤섞이면 반상의 차별이 없어지는 것이고 양반의 무덤에 상민의 뼈를 묻으면 변동천하가 온다고 믿는다. 청암부인은 신랑 준의와의 짧았던 인연이 애석해 자기가 죽으면 혼서지를 시신의 신발에 깔아 그녀의 뼈를 남편무덤에 합장해 달라고 유언을 했건만 사람들이 정월 대보름날의 놀이로 어수선한 틈을 타서 만동과 백단부부에 의해 투장이 저질러진 것이다.

2.3 여성성의 고양과 타자의 디스코스 : 혼불

여성가족사소설 『혼불』의 의의는 한국근대사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망실한 시대에 어머니의 '민족'이 살(肉)과 뼈(骨)의 축제로 '혼불'을 켜들었다는 데 있다. 혼불은 불이되, 죽음의 불이다. 불이라면 뜨거운 생명력의 원천/화중의 파괴충동이란 양면성을 가진 것으로서 한국인들은 불길을 남성성으로 젠더화해 왔다. 그런데 이 작품은 혼불이란 죽음의 관습적 상징을 생명의 원동력, 나아가 정신의 핵심, 마음의 정수로 재해독한 것이다. 식민지 치하에서 민족보존의 책임을 떠맡은 여성들의 이중고는 무기력한 남성을 대신해 자손을 낳고 가문의 재산을 늘리는 것이었다.⁴²⁾ 『혼불』에서 남성들이 현실에 소심하게 대처하는 데⁴³⁾ 비해, 여성들 특히 청암부인은 청암대신, 여중군자, 여중호걸로 일컬어지는 여장부였다. 퇴락한 종가에 청상과부로 시집와서 '지푸라기로 서까래를 만들어야 하니…… 내 홀로 내 뼈를 일으키리라.'고 종가를 일으켜 세움으로써 가문의 '혼불'로 거듭난 여성이다. 종가란 한 가문의 맏이로서 정신적 지주였고 종손은 조상을 섬기고 문중의 살림을 맡았으니 존중받는 종손의 아내인 종부의 책부 또한 막중했다. 그러나 종부도 가부장사회의 타자이기는 여느 여성과 다를 바 없었다.

42) 청암부인은 김정한의 여성가족사소설 『수라도』의 가야부인과 비슷하나 계급 의식에서 덜 개혁적이다. 가야부인이 반상의식을 탈피하고 손녀딸 분이와 상민 박서방과의 결혼을 승낙하는 것이라든지, 이웃과의 유대의식을 보여주는 것과 대조적으로 청암부인은 시집오는 날, 옹구네가 양반의 가마를 들여다 본다고 호통을 친다. 청암부인이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은 텍스트에 자세히 서술되지 않았지만 후에 저수지 공사로 마을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부서방과 같은 상민들에게 시혜를 베푼 건 해도 반가여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43) 이기채와 기표가 시국이 불안정할수록 재산만이 자신들을 지킬 수 있으리라고 믿고 효원의 친정에서 재산을 한몫 빼어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의존적이며 그들이 내세우는 양반의 체통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차이점이라면 제사에 참여한 남성제관들 틈에서 아헌작을 하는 정도의 위상이었으므로 특권적 지위를 누렸다고 보긴 어렵다. 게다가 이미 기울어진 허울뿐인 종가의 종부요 아이도 낳지 못한 청암부인은 양자를 들이고 온갖 시련을 이겨낸 끝에 가문을 반석위에 올려놓은 것이다. 가문의 혼불이기만 한 게 아니라 그녀가 조성한 청호(호수)의 신령스러운 조감지바위같은 존재로 가문과 마을의 지도자, 수호신 역할을 하고 있다. 죽은 뒤에도 이씨 가문은 물론 그녀와 인연을 맺었던 상민들까지 생전의 그녀를 회상하거나 그녀의 교훈을 기억한다. 그녀는 만주에 온 부서방⁴⁴⁾도 우연히 강모를 만나 청암부인의 사망소식을 들려주며 마치 청암부인이 그 소식을 전하라고 자신을 만주로 데려다 준 것같이 전율을 느낀다. 부서방은 어린 딸이 죽은 데다 만주에서의 생활이 매안보다 더 나을 것이 없었지만 청암부인과 잘 살아보겠다고 약속한 것 때문에 귀국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게 존경받는 청암부인이지만 그녀도 한때 종부의 삶이 힘겨워 차라리 열녀가 되고 싶은 적도 있었다. 한국 전통사회에서 여성은 출가외인이자 삭제의 기호였고 그 극단이 열녀였다. 여성의 공적 전기라 할 그 술한 『열녀전』의 생산 주체는 대부분 남성인 것을 보아도 열녀담론이 남성지배질서의 구성물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청암부인이 열녀보다 더 험난한 것이 종부라며 종부였기에 열녀를 단념했다는 것은 페미니즘의 딜레마

44) 부서방은 종가에 도둑질하러 갔다가 청암부인에게 발각되어 도리어 쌀가마를 지고 가라는 청암부인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간도로 이주한 뒤 강모를 만나 그녀의 사망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다. 그는 어린 딸이 동상에 걸려 생사를 도려내고도 끝내 죽게 되자, 언 땅에 묻은 딸애의 시신을 덮었던 포대기조차 도둑맞는 간도 조선인의 참상을 증언하는 인물로서 강태, 심진학같은 지식인들의 담화에도 끼어드는데 내포작가가 그에게 부과한 만주-매안의 연결통로는 부자연스럽고 작위적이다.

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관점에 따라서는 여성에 의한 자기왜곡일 수 있으나 청암부인은 자력으로 가문 부활에 혼신을 힘을 쏟아 종부다운 종부가 된 여성이다. ‘살로는 정을 나누고 빠로는 일을 한다’고 했다. 열녀의 길을 단념하고 종부를 택한 청암부인이나 첫날밤에 신랑 기서로부터 소박맛고 평생 베틀에서 내려오지 않았던 소박데기 인월댁에겐 정을 나눌 살이 없었기에 전자는 토지를 사모으며 종가를 살찌웠고, 후자는 오두막집에 웅크린 채 벼를 짜는 것으로 욕심을 비워갔다. 인월댁이 한 평생 마음을 비우는 것으로 살았다면, 청암부인은 마음을 채우기 위해 땅을 사고 재산을 모았다. 그러나 청암부인의 사후 종가의 지붕에 올라가 혼백을 부르는 고복(梟復)을 외치는 사람이 인월댁이라는 사실은 두 사람의 대조적인 삶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상처를 누구보다 공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청암부인은 자기시대의 제한된 범위, 주어진 여건 아래서 최선을 다한 여성이다. 왜 한국 현대 남성가족사소설이 성공담이 없느냐에 대한 반면교사가 여성가족사소설임을 『혼불』에서도 입증된다.

열녀의 허실을 꿰뚫고 거기에 비판을 가한 사람은 청암부인 외에도 옹구네가 있다. 옹구네는 청암부인과는 다른 시각에서 열녀비 결을 지나칠 때마다 입을 비죽거리는데 옹구네가 보기엔 인간의 희노애락을 포기하고 자결한 열녀의 삶이 실속없이 관념적인 것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옹구네는 열녀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비판하지만 청암부인은 열녀의 허실과 비생산적인 죽음을 비판한 것이다. 청암부인은 『혼불』의 3대 종부 효원에게 “너는 나를 많이 닮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효원은 청암부인에 미치지 못한 것 같다. 『혼불』이 청암부인에게 바치는 悲歌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효원은 아들 철재의 앞날과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춘복의 아이를 임

신한 강실을 추방하는 여성이다. 그녀는 다 죽어가는 강실을 뜨내기 황아장수에게 맡겨 결국엔 옹구네의 손아귀에 붙잡히게 되는 실책을 저지르고 만다.

그렇다면 『혼불』은 여성주의적 견지에서 어떤 크로노토프를 강조했을까? 그것은 첫째, 여성의 몸을 통한 세대지속과 교체, 그리고 변동 천하를 실현하고자 하는 몸담론이고 둘째, 집안살림의 전문성, 살림솜씨의 품격에 관한 여성노동 담론이다. 셋째, 집에서의 여성의 위상이다. 우선, 『혼불』에서 몸의 질서에 의하면, 삶과 죽음은 대립이 아니라 순환, 재생의 주기적 반복 곧 자연의 이법으로 인식된다. 그러기에 심진학선생이 나라=내 몸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연의 질서, 순리에 의한 국권회복의 전망을 드러낸다. 근대자본주의 민족국가의 시대적 요구로 등장한 아버지 ‘나라’와 어머니 ‘민족’의 결합⁴⁵⁾에서 어머니 ‘민족’의 정서적 일체감은 어머니 땅에 대한 동경이 투사된 것이다.

다음으로, 『혼불』은 여성들의 살림솜씨며 옷맵씨를 통해 집안일이 단순노동이 아니라 고도로 전문화된 달인의 경지임을 보여준다. 여성의 가사노동은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기에 무엇이 노동이고 무엇이 노동이 아닌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이제껏 생산성 낮은 체계로 간주되어 왔다.⁴⁶⁾ ‘산다는 건 공들인다는 것’이라는 청암부인의 말대로 『혼불』의 반가 여성들은 일상적인 세세한 것까지 내공을 쌓아, 그것을 격조높은 삶으로 승화시킨다. 양반의 아녀자는 ‘민어같이 억세고도 섬세해야’ 했다. 강실의 뽕잎따기나 효원의 흰죽썰기, 종가의 장담그기, 오

45) 미스, M, 시바, V, 손덕수 외 역, 『에코페미니즘』(창작과 비평사, 2004), p.161.

46) 미스, M, 시바, V, 손덕수 외 역, 『에코페미니즘』(창작과 비평사, 2004), p.208. 전통적으로 남녀 가족 구성원과 계급이 원초적 공간인 ‘집안’에서 형성되므로 생산, 양육, 죽음, 각종 가정의례, 등을 사랑과 의무로 해결하는 까닭에 가족윤리가 강요되기 쉽다.

류골댁의 솥뚜기, 설것이에도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다. 이들의 살림솥씨는 어머니-딸, 시어머니-며느리에게로 이어지고 그 과정은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주로 옛얘기를 들으며 구전담화로 전승된다. 무섭도록 엄격한 반가여성의 교육은 『내훈』으로 가다듬고 법도와 능력을 갖추는 데 두었다. 울촌댁이 효원더러 깃을 잘못 달았다고 비가 오는 진흙마당에 저고리를 팽개치며 분노하는 것도 며느리의 기세를 꺾어 보려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하인들을 시키더라도 상전이 술선수범해야 제대로 시킨다는 女訓이 바탕에 깔려 있었던 것이다.

세 번째로, 여성은 집에서 어떻게 자리잡는가에 관한 문제다. 여성의 가정 내 위상이야말로 크로노토프적이다. 전통사회 남성은 태어나는 즉시 종손이거나 장남으로 호명되고 그에 걸맞는 권리를 부여받지만 여성은 비정상, 왜곡, 삭제되어야 할 기호(미망인, 열녀……)이며 至情無文⁴⁷⁾에서도 제외된 딸들인 까닭이다. 『혼불』에서 남성인물들인 이기채, 기표는 하는 일이 별로 없고 강태, 강모도 전주부청에 취직했으나 맡은 일이 무엇인지 업무설명이 없어도 그들의 존재감은 뚜렷하다. 반면, 여성들의 일은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효원은 글씨체가 호방했으며 글읽기를 좋아하고 인월댁은 베를 짚고 사리반댁은 화전가 따위 가사를 잘 지었다. 오류골댁은 뽕잎 따기에도 일가견이 있고 울촌댁은 바느질 솥씨가 뛰어나다. 내포작가는 청암부인이 ‘인력이 지극하면 천재를 면하니.’라고 말한 것처럼 ‘헛눈’팔지 않고 일=노동에 전력투구하는 것만이 여성원리를 고양시킨다고 보는 것 같다. 또 그녀가 ‘여자는 땅이고 무슨 싹이든지 뿌리면 키워내야 한다’고 한 말은, 이것을 축소하면 개인적 모성이고 확장하면 가문이며 나라와

47) 지정무문이란 지극히 가까운 가족관계(부모자식, 형제……)는 제문을 쓰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딸은 출가외인이므로 제외됨.

인류, 우주적 대모신이 될 터이다. 여성에게 강요하는 온갖 억압을 수용하는 거대한 청호저수지 같은 여성의 풍요원리가 그것이다. 대모신은 남성 시각에서 조작된 신화로도 볼 수 있지만 청암부인은 과부, 가난, 불임…… 따위 완벽한 無存在로 출발했으나 시련을 이기고 위대한 안방마님이 된다. 그녀의 삶을 통해 우리는 적극적인 생명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와 더불어 이 전근대적 종부의 삶에서 눈여겨 볼만한 가치는 한국인들이 열강의 개방압력에 굴복함으로써 근대화를 추구하고, 전통문화의 급격한 상실로 가치관의 혼돈을 경험하며 민족정체성 위기에 대응하고자 한 작가의식에도 있다. 더구나 신여성의 등장 이후 페미니스트들도 가부장적 남성중심사회를 타파하기에만 너무 급급하진 않았는가를 돌이켜 보자는 것이다. T.모이(Toril Moi)는 페미니즘이 지향하는 주변성과 전복을 통한 타자의 재현은 이점도 있으나 타자를 길들이는 위험부담도 따른다고 했다⁴⁸⁾. 이 텍스트의 흡인력 강한 언어가 때로 페미니스트조차 남성의 시각과 동일시를 경험하게 하는 면도 있지만⁴⁹⁾ 내포작가가 세필로 그려낸 전통사회 일상의 점경들은 『혼불』의 커다란 매력이다.

2.4 등가의 원리와 類感의 주술언어

서술층위에서 『혼불』은 등가의 원리와 교감의 언어가 특징이다. 『혼

48) Toril Moi, *Sexual / Textual Politics*, London & N.Y, Methun, 1985, p.151.

49) 일례로 춘복의 망월장면은 그가 강실 겁탈을 획책하는 줄 알고 있는 내포독자에게 범행에 대한 비난보다 그의 한맺힌 절규와 달밤의 묘사로 연민의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불』은 감칠맛나는 전라도 토박이말과 반토막 문장으로 된 구어체⁵⁰⁾, 푸념과 신세타령의 강한 구술성, 반가여성들의 품위있는 내간체가 혼합된 언술상의 다성성을 보여준다.⁵¹⁾ 김열규는 이 작품의 언술을 ‘묘사적 서사’로 명명했는데⁵²⁾ 장면마다 그림을 보는 것처럼, 음악을 듣는 것처럼 재현되어 있다. 최명희는 언어의 주술사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사물들은 금방 생기를 회복하고 사물들끼리 조용해서 소설언어의 시적 변용이 일어난다. 『혼불』은 단어 하나로 흡인하는 울림과 떨림, 공명의 언어 미학이 주술적 감염의 법칙에 적용될 만하다.

등가의 원리는 ①인간=자연=역사, ②산 자=죽은 자, ③서술자=인물=독자의 세 가지로 나뉘 볼 수 있고 이를 좀 자세하게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인간=자연=역사의 경우, 청암부인의 발병은 청호 저수지의 가뭄과 창씨개명에 동시적으로 발생한다. 예를 들면 인간 : 청암부인 = 자연 : 저수지 = 역사 : 창씨개명으로 등치된다고 할 수 있다. 저수지는 청암부인이 사재를 털어 물이 귀한 마을의 현안을 해결한 것으로 공사중 드러난 커다란 조개바위는 조개가 여성상징인 점에서 청암부인

50) 토막문장, 옛날얘기투 혹은 3인칭 수사적 발화 예 : ~하리오. ~되었으니. ~하게 되었는데. ~아니었던 모양이라. ~자신을 죽이나니. 따위.

51) 청암부인과 이씨 문중 양반들은 『혼불』의 장처인 전라도 방언을 구사하지 않는다. 토박이말은 피지배층인 거명굴과 고리배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만 발화된다. 그 결과, 이 소설은 발화계층간의 거리는 좁히지 못하는 단성성을 드러낸다. 반상의 넘나들은 두렛날 장구치며 농민들과 어울리는 기옹과 강호의 거명굴 방문이 고작이다. 이것은 『토지』에서 길상이 평사리에서는 경상도 사투리를 구사하다가 만주에서 의병활동을 할 때부터 신분을 은폐해야 하는 처지 탓도 있겠으나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된다. 또 『미망』에서도 태임은 중인이니 그렇다고 해도 중상은 서울서 신식 교육을 받고 표준어만 구사하다 개성에 돌아오면 대화 상대자에 따라 표준어와 개성사투리를 골라 쓰기도 한다. 『혼불』의 다성성은 다양한 발화주체들의 제 목소리내기라고 해 두자.

52) 김열규, 앞의 책, p.53.

(여성)=물=조개가 등가적이다. 혹은 만주의 심진학선생이 시체처리장 부근을 지나다 개한테 물려 병원에 가는데 제국주의 식민주체들=미친 개로, 개에게 물어뜯기는 심진학의 처참한 모습은 식민지 백성과 패러다임을 이룬다. 그같은 등가의 원리를 극적으로 재현한 것이 『혼불』의 흡월정, 혼불, 투장모티프이다. 이를테면, 흡월정의 경우, 청암 부인의 명령으로 효원은 우물가에서 아홉 솥통을 마시고 실신하며 춘복은 강실의 배를 빌어 양반의 씨를 낳고 싶어 정월 대보름날 저녁, 언덕에 올라 남먼저 “달 봤다야.” 하고 망월(望月)을 부르짖는다. 한국인들은 우주적 리듬이나 자연의 섭리가 인간과 교통한다고 믿는 자연주의자들인 까닭에 아기생산과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며 보름달을 보고 “마양위얼이야.”를 외쳤던 것이다. 『혼불』의 달 담론은 무척 다채롭다. 봄달 : 애달픔, 여름달 : 젊고 기름지며, 가을달 : 처연함, 겨울달 : 氷輪으로 얼어붙은 겨울달을 최고의 달로 친다. 한편, 달은 강실을 비유하기도 한다. 이것은 세 차원에서 형상화되는데 첫째는 인물과 서술자의 교감으로 강실(=달)과 서술자, 둘째는 인물과 사물의 조응으로 강실=달, 세째는 사물과 사물끼리로 ‘달빛소리=구슬을 파랏게 쏟는 소리’와 같은 공명현상이 그것들이다. 호성암 종소리가 산야를 거쳐 강실의 폐장을 찢는 만종소리처럼 들리는 것도 공명현상이라 할 것이다. 또 강실의 모습은 강모에게 ‘이쁘고 어깨가 둥근 사람’으로, 춘복에게는 간절한 변동천하의 자궁으로 인식되어, 그녀의 몸짓이나 행동은 희미한데 존재만으로도 강모와 춘복, 두 남성을 달빛처럼 사로잡는다. 이렇게 강실이와 같이 직접적인 발화에는 별로 참여하지 않으면서 그 언술행위가 만들어내는 재현세계 속에 존재를 드러내는 것은 주변부, 타자의 속성이다. 강모가 나중에 전주부청 공금을 횡령해가면 서까지 오유끼의 몸값을 지불해 주는 것도 오유끼가 강실을 닮았기

때문이었다. 이 두 여성은 강모의 여성아니나다. 오유끼가 일하던 요리집 간판도 모찌즈끼(望月)이어서 달=강실=오유끼는 등가적이다. 도환스님을 찾아간 강호가 범련사에서 사천왕상 얘기를 들던 중, 북방 다문천왕의 왼발 아래 짓눌린 젊은 여인상이 강실을 닮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죄가 있으니 사천왕의 발 아래 있을 터, 여인의 죄라면 음행이 아니겠는가. 강실에게서 음녀상을 발견한 강호의 예리한 통찰력은 그의 남성중심적 이데올로기를 드러내는 것이다. 강모의 세 여인 중 효원은 고독과 허허로움의 정서를 환기하는 대나무의 이미지로서 아니무스여성이다. 그녀의 친정이 대나무가 많다 하여 대실(竹谷)이기도 하려니와 그래선지 사람들은 그녀가 대나무의 기상을 지녔다고 말한다. 서술자는 속이 빈 대나무는 바람을 안고 산다고 했다. 대나무로 짓대, 살대, 붓대를 만들되, 짓대는 피리의 울음이, 살대는 화살처럼 사라지는 사라진 님을, 붓대는 공구를 지키며 님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글쓰기이니 새색시가 달가워할 것이 아니다. 강모가 처음 보는 신부에게 어색함을 덜어보려고 꺼낸 화제가 “백초는 다 심어도 대는 아니 심으리라……”라는 작자 미상의 시조를 읊고는 앗차 싶었지만 효원은 강모에게 첫날밤부터 섬뜩하고 태산처럼 짓누르는 거세공포를 느끼게 했다. 효원 역시 민승머리 강모가 비릿한 역겨움으로 다가와 서로에 대한 거부감은 두 사람의 순탄치 못한 앞날을 예상케 한다. 화촉신방에 든 강모가 효원을 버려둔 채 혼자 잠자리에 들어 강실의 꿈을 꾸고 효원은 신부처럼 그대로 앉아서 밤을 새우며 소박당한 모멸감에 앙심을 품는다. 그런 상황에서 효원의 임신이 가능하게 된 것은 강실을 범한 후, 강모의 효원에 대한 공격 충동의 결과이니 강실(=달)이 철재를 태어나게 한 원심력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혼불』에서 남자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여성의 몸은 대개 신체적 과잉기호로 제시된다. 청암부인은 ‘장대하다 할 만큼 큰 키, 우뚝 솟은 어깨, 넓은 이마, 두드러진 광대뼈, 두툼하고 긴 코, 풍요로운 턱을 가진 제세호걸의 풍모⁵³⁾를 띤 그로테스크한 여성모습인데 효원도 청암부인을 닮았다고 했다. 이들은 여성답지 못한 이질적 외모를 대표하며 외모의 이질감은 상대방에 대한 호감/반감을 낳기도 한다. 청암부인은 울촌댁의 폐백을 받던 날, 자신과는 달리, 아담하고 화사한 울촌댁의 용모를 선망한다. 반대로 울촌댁은 효원의 큰 키와 당당한 태도가 시어머니 청암부인에게 숨죽이고 살아온 자신과 유약한 아들 강모의 기를 죽이는 것으로 생각, 효원의 기세를 꺾으려고 저고리사건⁵⁴⁾을 일으킨다. 기채, 기표 역시 춘복의 칼눈썹이 역천의 반항아상이라 하여 요주의인물로 경계했던 것이다.

이 작품에서 여성의 몸담론은 국권상실 시대 힘의 논리가 절실했던 만큼, 사천왕신앙의 호국불교를 선호하는 것과도 연관된다. 사천왕상의 배치가 생체방위를 가리키듯 자연의 순리로서의 몸의 질서는 국권 회복의 전망과 더불어 관념적 미륵신앙보다 불법수호에 직접 뛰어들 무장들인 사천왕상을 중시한 것이라 생각된다. 『혼불』에서는 ‘몸=나라’라고 인식하고 몸을 지키듯 민족을 지킬 자국의 크로노토프도 강조하면서도 관상학적인 운명론과 순혈민족주의⁵⁵⁾의 입장에서 육체를

53) 『혼불』 제3부 제2권, p.30.

54) 울촌댁은 효원에게 입던 저고리를 빨아서 다시 지어오라고 시켰는데 효원은 정성껏 손질해 가져갔지만 바느질솜씨가 워낙 뛰어난 울촌댁의 눈에 들지 못해 울촌댁은 하인들이 보는 앞에서 저고리를 진흙탕에 팽개치고 효원은 수모를 참으며 그걸 다시 고쳐짓는 소동이 일어난다. 이 때 고부간의 심리적 갈등이 서술독백을 통해 숨막히게 전개된다.(『혼불』 제1부 제1권, pp.190~196).

55) 『혼불』은 심진학선생이 강태에게 발해 멸망원인으로 지적한 이민족사회를 들어 순혈민족주의를 주장했는데 이것이 민족내 반상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야

타자화시키고 있어 몸을 긍정적으로 다루는 것만은 아니다. 몸을 적극적으로 공격 담론상에 끌어들인 바흐찐과 프로이트도 여전히 몸을 타자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선 ‘몸은 여성의 타자’라고 한 S.보봐르와 별반 다르지 않다.

② 산 자=죽은 자의 등가성은 강수의 망혼제굿에서 강수의 어머니 동넝골댁과 무당 당골네를 통한 강수 영혼의 대화, 강수의 영혼이 실린 오류골댁과 동넝골댁의 대화, 청암부인의 혼불 등이 해당된다. 혼불은 망자가 죽기 전 몸을 빠져나와 다음 세상을 예비한다고 하는데 비명횡사한 사람의 혼불은 몸 속을 나가지 못하고 중천을 방황한다는 것이다. 요절한 강수와 달리 장수를 누린 청암부인의 혼불은 인월댁에게로 당골네 꿈길로, 바람소리에 실려 효원에게 목격된다.

그날 밤, 인월댁은 종가의 지붕위로 훌렁 떠오르는 푸른 불덩어리를 보았다. 안채 쪽에서 솟아오른 그 불덩어리는 보름달만큼 크고 투명하였다. 그러나 달 보다도 더 투명하고 시리어 시리어 섬뜩하도록 푸른 빛이 가슴을 철렁하게 했다. 청암부인의 혼(魂)불이었다.……

“나 아직 여기 있다. 아가, 이 방은 빈 방이 아니다. 나는 오래 오래 여기 있을 것이니라.”

창호지의 불빛은 그렇게 나직이 말하고 있었다. 청암부인의 목소리는 효원의 살 속으로 배어든다. 목소리는 불빛을 머금은 채 그네의 살을 푸르게 물들인다. 그네의 몸에서 인공(燐光)이 돈다.⁵⁶⁾

소설 『혼불』의 주제를 압축하는 이 장면에서 효원은 사라지는 불꼬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마치 흡월정하던 때와 같은 무서운 정성으로

하는지는 과제로 남기고 있다.

56) 『혼불』 제1부 제2권, pp.284~289.

현기증을 일으키며 청암부인의 혼불을 빨아들인다. 서술자는 이런 효율을 두고 '이제 그네는 청암부인을 낳을 것이었다.'라고 표현한다. 손자며느리가 시조모를 낳는다는 시적 비유를 통해 혼불은 직접적으로는 청암부인의 죽음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면적으로는 가문의 종부를 계승한다는 의미도 된다. 산자와 죽은 자의 교감이 비단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다. 서술자는 '뺏아빠진 부지깽이조차도 오래 쓰면 낫이 생겨 아무데나 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③ 서술자=인물=독자의 세 층위에서의 등가성이다.

이것은 주로 베틀가, 상두가, 화전가 따위의 삽입가요와 판소리의 인용 등으로 서술자/인물/독자간의 발화경계가 파괴되는 경우이다. 예컨대, 들일을 하던 공배네, 평순네, 옹구네 등이 쉬는 참에 우레가 기표의 아이를 임신한 소식을 주고받다 판소리 『흥부가』를 삽입한 단락⁵⁷⁾에서 『흥부가』의 창자와 공배네는 구분되지 않고 넘나드는데 발화의 주체를 기표화함으로써 텍스트 속 청중들을 의식한 서사진행을 돕는 것이다. 혹은 만주의 강모하숙집 주인 김씨의 내력을 얘기하던 서술자가 인물의 발화에 개입, 서사진행상 김씨의 과거사인데 서술자 발화와 인물의 발화로 구성된 부분에서 독자를 상대로 서술독백과 인물끼리 대화가 공존하기도 한다.⁵⁸⁾ 이는 공명의 효과와 메시지를 보충하는 구실을 해준다.

이밖에도 『혼불』의 언술은 소리의 공명, 빛의 교감, 향기의 융합이 공감각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57) 『혼불』 제2부 제1권, pp.201~205.

58) 『혼불』 제3부 제1권, pp.96~99.

마당의 만수향내가 몽글몽글 담을 넘어오고, 들판의 꽃잎들이 진액을 뿜으며 별을 삼킨다. 꽃술에 내려 꽃힌 별들의 심지가 불꽃을 일으키며 숨막히는 화승처럼 터진다. 이윽고 꺾전에서 울던 풀벌레의 여치 풀벌레의 울음소리도 숨이 멎고, 불살을 뒤채며 사납게 소용돌이 치던 은하수도 아득하다.⁵⁹⁾

윗글은 망혼제를 구경하다 강실을 범한 뒤 강모의 의식이 깨어나는 장면이다. 동넉골택의 마당에서 만수향→들판의 꽃잎→밤하늘의 별빛→풀벌레소리→은하수로 이어지는 지상/천상을 오가며 망혼제에 피운 향이 꽃, 별들과 조응해서 들판으로, 하늘로 한 동아리 속에 녹아들고 있다. 이렇듯 『혼불』은 한국 여성서사체⁶⁰⁾의 전통담론이면 무엇이나다 실험해 본 것 같다. 무당의 냇두리에서 비롯된 푸념과 신세타령이 격조높은 사대부집 여성들의 내간체와 어색하지 않게 어울리고 있는 것이다. 『혼불』은 소설언어의 영역을 최대한 확장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위에서 최명희의 여성가족사소설 『혼불』과 죽음의 크로노토프를 검토해 보았다. 『혼불』은 죽음의 크로노토프로 보자면, 플롯층위에서 결말없는 열린 텍스트이고 주제차원에서 영생, 순환하는 한국인의 존재론이다.

59) 『혼불』 제1부 제2권, 1992, p.74~75.

60) 필자는 여성작가가 쓴 여성 주도의 서사물(소설, 일기, 드라마, 시나리오……)을 일컫기로 한다.

안숙원, 『현대소설연구』 제21호(한국현대소설학회, 2004.3), p.208.

3. 맺음말

『혼불』은 바흐찐이 말하는 자궁과 더불어 또 하나의 근원적 크로노토프인 죽음의 크로노토프를 제기하는 여성가족사소설로서 의미심장하다. 요컨대, 『혼불』은 몰락한 가문을 지켜낸 한 종부의 삶을 입상화하는 한편, 혈통보존/핏줄거부라는 반상의 갈등을 창씨개명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결부시켜 변화하는 당대 현실과 민족의 공적 역사를 아우르는 여성가족사소설인 것이다. 『혼불』에서 죽음의 크로노토프는 결국 씨=혈통, 씨앗(열매)의 문제로서 씨 지키기/바꾸기로 요약된다. 플롯층위에서 열린 플롯으로 여기엔 무부 홍술의 유언과 그것을 현실화하려는 만동과 백단의 투쟁 음모, 거명굴 천민 춘복의 반가 처녀 강실 겁탈, 피해자인 강실보다 아들과 가문의 망신을 더 두려워하는 종손부 효원을 비롯한 매안 이씨 문중의 이기심, 이를 교묘하게 역이용하는 옹구네 등 반상의 대립이 갈등의 서사소로 중요한 기능을 한다. 주제층위에서 혼=생명이라는 종부 청암부인의 말처럼 죽음은 조상과 자손의 영생, 순환의 한 단계에 불과하다는 인식 아래, 청암부인의 죽음을 필두로 무수한 죽음과 그것에 관련된 각종 의례들, 피붙이로서의恨, 작품 제목인 ‘혼불’과 망인에 대한 추억, 따위 한국인의 사관이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다.

아울러 『혼불』은 여성의 몸과 집안살림의 노동가치 격상, 여성들에 관한 여성의 담화가 많다는 점, 등등 여성원리를 고양시키고 집안의 타자인 여성이 어떻게 전복적인 위치를 재현하는가를 보여준다.

□ 텍스트

1. 최명희, 『혼불』, 한길사, 1992.
2. 최명희, 『혼불』, 한길사, 1999.

□ 참고문헌

- 김열규, 「생태 목시록시대의 『혼불』의 생태비평」(현대문학이론학회 학술대회 팸플릿, 전북대 1999. 12.4). pp.1~13.
- 김열규 외, 『신삼국유사』, (사계절, 2000), p.61.
- 박완서,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조선일보사, 1994), p.32.
- 안숙원, 「소설의 크로노토프와 여성서사 시학(1)」, 『현대소설연구』, 제20호, 2002. 3, p.208.
- 오세은, 「여성 가족사소설 연구」(서강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0), pp.1~173.
- 우해영, 「최명희 『혼불』의 담론 연구」(중앙대학원 석사논문, 2000).
- 이문영, 「바흐쥰 대화주의와 *contradictio in adjecto*」, 러시아문학회, 『러시아문학』, 제12집, 2002, p.160.
- 장일구, 『혼불 읽기 문화 읽기』(한길사, 1999), pp.272~273.
- 전라문화연구소 편, 『혼불의 문학세계』(소명출판, 2001), pp.3~424.
- 최인자, 「대화적 서사의 진정성 윤리와 서사문화교육」, 『국어국문학』, 제141호, 2005.12.
- 미스, M, 시바, V, 손덕수 외 역, 『에코페미니즘』(창작과 비평사, 2004), pp.161~208.
- 브룩스, P, 이봉지 외 역, 『육체와 예술』(문학과지성사, 2000), p.460.
- 쥬네트, G., 권택영 역, 『서사담론』, 교보문고, 1992, pp.30~113.
- 바흐쥰, M., 전승희 외 역, 『장편소설과 민중언어』(창작과 비평사, 1988), p.413.
- Gerald Prince, *Narratology*, Mouton Publishers, N.Y, 1982, pp.83~84.
- Mary L. Pratt, *Towards a Speech Act Theory of Literary Discourse*, Indiana Univ.Press, 1977, pp.45~132.
- Mikhail Bakhtin, *Dialogic Imagination*, (trans), Caryl Emerson & Micheal Holquist, Texas Univ., 1981. p.250.
- M.M.Bakhtin, *Problems of Dostoevsky's Poetics*, (trans), Caryle Emerson,

Minnesota Univ., 1984. p.28.

Roy Pascal, "Narrative Fiction and Reality", *Novel*, Fall, 1977.

Ruth Ginsburg, The Pregnant Text : Bakhtin's Ur-Chronotope, *Critical Studies*,
(ed), Myriam Diaz-Diocraetz, Ammsterdam,-Atlanta, GA, 1993,
pp.169~173.

Toril Moi, *Sexual / Textual Politics*, London & N.Y, Methun, 1985, p.151.

Tzvetan. Todorov(ed), *French Litetary Theory Today*, Cambridge Univ.
Press, 1982, pp.11~12.

Abstract

Chronotope in the Novel and Poetics of Female Discourse— Focusing on *Honbul* of Choi, Myoung-Hee —

Ahn, Sook-Won*

I have examined a novel of womans' family history *Honbul* and the chronotope of death. The chronotope of death is divided into reality and semiotic death ; the former is tombs of Mrs. Chungam while the latter is many kinds of rites relating to the death of characters and folk customs. This includes the following : performance of a soul marriage of a dead boy and girl, funeral, the rite of making evenly tomb, the rite of the finishing cry, a blue fire from the dying person's body, losing flesh from the dead body, destroying Mrs. Chungam's grave and burying Hongsool's bones there by Mandong, a letter of the sacrificial rite, and a tombstone of a virtuous woman, etc. Thus death is the kernel narrative of *Honbul*, and the characters in the novel are possessed by thanatos. Also, the death becomes a seed of life, so it's considered as a progress of a shift in generations. That is an ambivalence. Therefore, *Honbul* is a festival of flesh and bone based on the eternal, circulating ontology of Korean people. It has been said that human-beings have affection together with flesh and works with bones. As Mrs. Chungam decided to rebuild a declining head family of Maean Lee, she gives her word, 'I will rebuild my bones by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KRF-2002-050-A00015)

myself' without her husband to share affection with. The main subject of *Honbul* is the suffering history of women as a ruined nation's people, without a father in a patricentric society where father is country and mother is nation. Moreover, when making a new family name was enforced by colonizers of Japanese imperialism, a conflict between the family name of Maean Lee trying to keep seed(=blood), and Gumanggul, Goribaemi (the lowest class in contemporary society) to take revenge on Maean Lee's family and the upper class by changing family name became conspicuous. *Honbul* is an open text without plot, closure. Then it brings about talkative, extended rhetoric, parade of episodes, zero of narrative speed, achronicle, it maintains coherence of the text by individuality, similarity of motives, and association instead. It's like a part of Pansori. Even though, in *Honbul* the woman narrative enhances feminity with discourse on female's body and evaluation of domestic-affairs, it's an antifeminism text that characterizes a patriarchal wife of the head family. None the less, the great figuration and vivid descriptions by accomplishing poetic style as an absorption of magic power in *Honbul* makes us identify the life of the antifeministic head family's wife with male's point of view

key words : M. Bakhtin, Chronotope, chronotope of death, honbul, a head wife of the head family, family name, seed, absorption of the full moon, making a hole of one's tomb, womb, a novel of womans' family history, a head family, domestic-affairs, ambivalence, home

■ 위 논문은 4월 3일 투고되어, 5월 6일 심사완료 후, 5월 12일 게재가 확정되었음.

